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의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08호 현대불교  
2008년 12월 3일(음력 11월 6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법공양 페이지

25

# 침착하게 한생각을 잘해서 잘 말을 하고 잘 행하라!

오늘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한자리를 해 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합장하시며) 더불어 같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은 안 하죠. 하여간에 전 여러분을 뵈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기쁩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모두 한마음이 돼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어떠한 혼란이 오는 것도 막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법(空法)의 연기법을 그대로 응용하고 계신 겁니다. 납득이 안 되세요? 허허허...

천차만별의 그 광대한 법은 누가 죽는다 안 죽는다, 굶어 죽는다 잘 먹고 산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 한 지구를 집을 삼아서 살고 있는 생명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리를 웬만큼 납득하고 이해하기 이전이라도 '진짜로 내가 나를 움직이리게 하는구나. 그리고 살리는구나. 그리고 형성시켰구나.' 하는 걸 아신다면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내가 그토록 알고 믿고 당당하니까 어떤 게 온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죠. 잘되는 게 부처님 법이 아닙니다. 잘되고 못되고 이 양 갈래길을 다 자기 한순간에 쥐어아무리 그걸 부처님 공법이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 같지만, 우연히 사는 거 같지만, 팔자 운명으로 사는 거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아까 말을 잘못했다면 그 잘못된 게 지금 나한테 돌아올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침착하게 한생각을 잘해서 잘 말을 하고 잘 행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도리를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서 내 앞에 닥쳐오는 것은, 팔자 운명의 탓이 아니라 자신의 탓입니다. 팔자 운명이 어디 붙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풀 하나도 나무 한 그루도 우리 인생들도 다 쉼 사이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 뭐가 팔자니 운명이니 하고 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을 잘 못하고, 행동을 잘 못하고, 계산을 잘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니라, 눈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귀 뜨고 있죠, 발 움직여주세요, 냄새 잘 맡죠. 다 이렇게 풀어 놔달라 합니다. 그래서 앞뒤를 다 보고, 그냥 스쳐 가는 대로 앞뒤를 보고 행해라, 이런 뜻이죠. 그것이 그대로 연기법이며, 그대로 공법이며, 그대로 세상 법이요.

우리는 살아오면 숨이 있어서 마음으로 그 숨을 놓칠 못해요. 그 숨을 때려야 뭘 수가 없는 게,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또 예전부터 살아오고 그랬으니까, '웃한다, 한다'가 너무나 많고, 또 앞면서도 숨 그대로 그냥 행하고 말이에요. 자기가

실천을 해 볼 생각도 안 하고 말이에요. 난 지금 인생살이에 극치적으로 들어가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함으로써 지구라는 집 하나가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물에 죽고 불에 죽고 이렇게 세계가 극난을 받았지만, 지금은 사람들 마음에 의해서, 심상에 의해서 모든 것을 전멸시킬 수도 있고 전부 살릴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그것은 다 대치가 되죠.

그저 누가 요만큼만 얘기하면 그것이 머릿속에서 뱅뱅 돌아가고 그러죠? 그런데 나로서는 어떠한 일이 닥쳐도 이 마음이 움직여서는 법은 없어요. 그냥 봐서 체계를 세우고 그대로 봐서 그냥 하지 마음이 움직여서는 법은 없거든요. 왜냐? 진짜로 알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알기 때문에 '우

(머리를 짚으시며) 자동적으로 이 정수에 입력이 되면 입력되는 대로 현실에 나오는 거니까, 거기가 되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입력은 연방 없어지면서 그릇이 비고, 새 입력이 들어가면 금방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 그릇이 항상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비어 있으니까, 어떤 거라도 이 우주 삼라대천세계를 다 모아서 거기 넣어도 그릇

인이 된다는 얘깁니다.

우주 삼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 이 우주도 한계가 없습니다. 우주도 많고 은혜제도 많은데 각각 도시나 시골이나 이런 차원의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 지구가 소속된 은혜체나 우주만 있는 게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헤아릴 수 없는 그 자체를 이름 해서 부르는 게 바로 '대천'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주 삼라대천 대천세계! 이름은 이름이지마는 그게 이름이 아니면 이름을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름을 짓는 겁니다. 방편이자 현실입니다, 그게.

이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의 몸은 생각지 마라' 이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기도 해요. 아주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한번 미치지 않고는 못 하는 공부거든요.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넓은 길만이 길이 아니라 저 갈대가 많고 온통 그냥 돌사라다리로 된 산이 길이다'고 그러는 겁니다. 내 이 속의 스승이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두말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같으면 대로가 있는데 길이 아닌 데를 길이라고 그러니 그게 믿겠어요? 그러나 믿든 안 믿든 그대로 나를 내버렸다면, 죽은 것이 무슨 말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네? 진짜로 내버렸다면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무슨 탈이나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갔죠. 그러니까 온 몸뚱이가 다 찢어지고 벗겨지고 피가 나고 그러는데도 생각이 하나도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날 버렸기 때문이죠. 버리려면 아예 그렇게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안 버리고도 지금 현재에 여러분이 '고정됨이 없다' 하는 것을 알고 '나는 내가 아니고 내 주인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생각을 하고 그대로 거기 다 놓으면 그것도 죽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모르고 그랬지만, 나중에 '그러해도 죽는 거고 저러해도 죽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길 아닌 길로 갔지만 얼마나 그 밤에 뜨뜻하게 잤는지 몰라요. 그렇게 가다가 길이 막혔는데, 천야만아한 데를 내리뛰라는 거예요. 나를 버렸으니 뭐 죽고 사는 거 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발짝 딱 내디뎠더니만 빙글빙글 돌아서 떨어진다네 게 나뭇단, 왜 예전에는 나뭇단 묶어서 산 밑에다가 쌓아 놓는 데 있죠? 그게 쌓여져 있는 데로 펴! 하고 떨어져요. 그렇게 떨어지고는 여이가 없어서 영금영금 기어 내려와서

26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하는 한편 세계생생을 얻게 돼서 불국토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문제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진짜로 나를 믿는다면, 각자 나를 믿는다면 거기에서 힘이 배출돼 나오기 때문에 육체적인 나로서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걱정할 게 요만큼도 없어요. 나라 걱정도 없고,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없고, 지구의 오존층이 터져서 다 죽는다 하더라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런 힘이 있어야 아무 걱정이 없죠. 아무 걱정이 없으면서도

주 '삼천(三千)' 이렇게 됩니다. 우주 삼천! '우주' 하는 건 평등공법(平等空法)에 의하는 거지만, 이 '삼천' 하는 것은 과거, 미래, 현재를 한데 합친 '천(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한데 합쳐 가지고 '대천(大千)'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대천세계(大千世界)! 이러니까 그 대천세계로 말하자면 여러분의 근본, 그 무전기에 다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다. 반야졸이라고 하지만 무전기 줄이라고 합시다, 우리, 허허허...

이 작지 않죠.

지금 내가 한 말 이해가 됩니까? 삼천대천세계를 다 내 그 주인공 안에 넣어도 그릇이 작지 않다, 두드러지지 않고, 작으면 작은 대로 답아지는 그릇이 맞고, 크면 큰 대로 맞고 그래서 깨내 쓰더라도 또 쪼이지 않는 겁니다. 이 평등공법이 이렇게 광대한 것을 잘 알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한 걸 걸면서 잘 해야 위 조상들이나 아래 모든 자손들이나 다 양쪽으로 건질 수 있는 바로 그런 자유

## 스리랑카 케라냐 대학이 보장하는 미국-영국 대학유학을 위한 확실한 길!

### ▶무시험입학 전형 및 특전 [수능성적 무관 - 내신성적 무관]

학생들이 강의 필기, 독해 공식적 프리젠테이션, 개별토론 및 토의, 논문작성, 심화독해 문어체 텍스트분석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대학교수준의 공부를 학생들이 할 수 있게 하기위해서 학생들을 영어 및 학습에서의 여러 요령을 터득하는데 집중하게 될 것이며, 그 요령은 아래와 같은 것 들이다.

- 학문적정취 및 필기
- 일반적 논문 및 보고서
- 구두(口頭)발표
- 교직원 및 다른 학생들과의 의견교환
- 학문적 독서 및 비판적 본문분석
- 요약과 해석
- 조사 및 도서관 활용법
- 컴퓨터 기술과 그 향상
- 시험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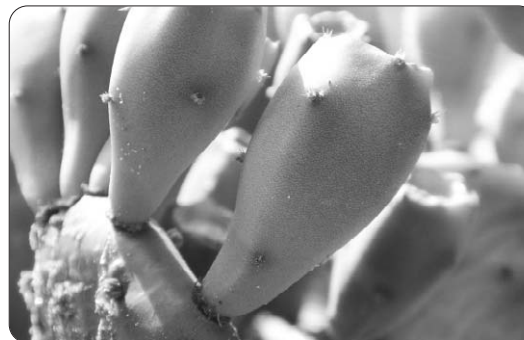
### ▶케라냐대학에 입학했을시 누릴수 있는 특혜

- 스리랑카에 있는 외국대학 (미국유학 : ANC, American School / 영국유학 : England School)에 입학할수 있다.
- ◇ 그리고 2학년 수료후 미국, 영국대학에 편입할 수 있다.
- ex) 미국 - Boston대학, 뉴욕대학 / 영국 - 옥스퍼드 대학 등
- ◇ 스리랑카에 있는 모든 대학의 2학년에 입학시험없이 편입
- ◇ 저렴한 비용으로 대학을 다닐수있다. (영어연수 / 전공과목이수)
- ◇ 남녀분리 기숙사가 완비되어있다.
- ◇ 학생비자는 스리랑카 케라냐대학이 스폰서를 맡아 발급하므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

## 한국스리랑카국제불교재단 이사장 해각지성

- ◇ 한국본부 : 성불사 주지 해각지성 스님
- ◇ 상담전화 : 서울지사 (02)813-3739 / 직 010-2519-0100

##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C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 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C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buddhanews.com

# 무(無)의 세계의 문 아닌 문은 논리가 불지 않습니다

### 25면에서 계속

생각을 하니까 '아하, 고마워' 허허하... '이 나 무 한 단 빼놓고 그 속에서 자라고 그랬구나! 참 이렇게 신기한 법이 어렸는가. 내 몸은 모두 너의 시지일 뿐이야. 시자를 뜻듯하게 자라고 이렇게 했구나!' 하고 그냥 하나 빼고선 들어가니까 얼마나 따뜻했어?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도 그 움막 살이나, 왜 예전에는 땅속으로 파서 하는 걸 움집이라고 그러죠? 네?

### 사회자 음집...

**큰스님** 음집, 네. 그런 걸 봐도 그렇고, 다리 밑을 가다가 비 안 맞을 정도로 돼 있는 데를 보면 그것이 아주 싱긋이 웃어지고 좋았지, 좋은 집을 보고 웃는 예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 삼막사의 길을 가다가 '아하, 이것도 착이로구나! 그걸 좋아하는 것도 착이로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모두 생각을 해 볼 때에 '나를 버리면 성공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두 자기기가 함이 없이 지금 연기법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자체가 그걸 알지를 못해요. 살아오던 집착에 의해서 번뇌라고 할까 그것이 그대로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렇게 연결해서 돌아가더라도 내가 아주 죽었다면 그 뭐가 있었습니까? 내가 나를 버렸다면 말이지. 내가 버려서 버리는 게 아니고 이미 그렇게 버려져서 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미!

그래서 항상 어느 때든지 어디 가서든지 이 말은 빠짐없이 합니다. '고정되게 볼 수 있느냐? 고정되게 들고 있느냐? 고정되게 움켜쥐려느냐? 아버지 노릇만 하느냐? 남편 노릇도 하고 아들 노릇도 하고 형 노릇도 하고 아우 노릇도 하고 이리저리 없느냐?' 그러니 그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걸 좀 보세요. '아버지!' 하나씩 뭐 아주 자동적으로 "그래" 하고 대답을 하고 맞아들이는 그 아버지가 자기겠습니까? "어보!" 할 때 남편으로서의 자기가 자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대로 연기법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연기의 공법을 그대로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걸 왜 남들을 못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받은 바로 다니고 받은 거꾸로 다닌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꾸로든지 바로든지 내가 그 등근 모두를 다 알아야 되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등글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도 그냥 있는 게 없이 다 움켜쥐려고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땅에 발을 붙이고 다니니까 우리가 바로 서서 다니는 거 같지만, 때로는 거꾸로도 되고 때로는 바로도 돼요. 수시로 돌아오. 그런데 착이 앞에 가려서 마음이 거길 따라설 수가 없어요, 이게 비어야 되는데.

종교라는 걸 떠나서 불교라는 것은 불(佛), 즉 그 영원한 생명의 근본, 그리고 교(敎)는 우리 생활, 그러니까 불교라는 것은 어디 떠 데 있거나 우

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그대로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불도 생명이 있고 물도 생명이 있고 바람도 생명이 있고 흙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체를 먹고 사는 거죠. 그것으로써 이렇게 생명체를 가지고, 생명체가 있으니까 또 그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지수화풍을 먹고 또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는 거죠. 바람으로 흩어지고 물로 흩어지고 원기로 흩어지고 흙으로 흩어지고 이렇게 해서 내 군데로 흩어져서 돌아가는 거죠.

의정도 여러분이 탄 데서, 즉 책에서 찾으려고

리라도 부처님 법문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푸른 산은 그대로 다 부처님 모습이에요. 흘러가는 푸른 물은 다 부처님의 설법이요. 이 모두가 아니 닿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부처님 법이고 어떤 것이 부처님 법이 아닙니까?

팔자 운명도 없으니 내가 생각해서 내가 흐트하게 살고, 내가 잘못해서 그 고통을 받는 것을 지 금이라도 당장 벗어나야죠. 어떤 때는 남을 믿고 이름을 빌려 봤는데 부도가 나서 다 망했다고 그래서 "여기 언제부터 다녔어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 오기 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하는 걸 다 알게 되기 때문에 딱 보지 않던 거, 자기가 써 보지 않던 거, 보지 못한 것들을 귀뎀을 해 주면은 요 다음에 죽어서 이 세상에 아무 몸이나 받아 가지고 나와서 또 꼭도로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고 팔 팔 뛰고 아파서 울고, 두드려며 울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거든요. 나는 그걸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식을 기르고 부모를 섬기며 중간에서 이렇게 살면서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울고, 안 돌아가셔서 울고... 허허하... 정말이예요. 늦도록 안 돌아가시면서 고통을 주

가 나가든지, 한 달을 지냈나 나가든지 나가는 거는 외려 더 이자를 붙여서 나가요. 그러니 내 것이 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 젊어지고 다니는 사람은 자꾸 잃지만 놔두고 다니는 사람은 아주 천 년 만 년 수만 년 이 가도 자기 거예요. 전부. 그 왜 도둑맞게 잃어지고 다니니까? 끌어다 놓으면 도둑놈 들어오고 강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왜 한 푼이라도 내가 잃어지고 다니니까? 안 잃어지고 다녀도 쓸 때 되면 다 들어오는 거, 다 주는 거, 그 주는 거 가지고 어떻게 살림을 잡느냐에 따라서 또 준 사람들에게 공덕을 입게 하는 거거든요. 공덕이 있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느 대장부로 사는 사람이 돈이 많아서, 아주 어려운 고학생한테 돈을 한 보따리를 줬더라. "너 이 돈을 사흘 만에 다 쓰고 오나라." 그랬습니다. 그래, 나가서 십 리, 이십 리를 걸어가서 몽땅 쓰러니 어떻게 다 쓰니까, 그 많은 돈을. 예전에는 차가 그렇게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돈 준 사람의 이름으로 학교를 지어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다 들어가더라는 얘깁니다. 그 이름 앞으로 몽땅 다 쓰고 자기는 속삭였다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돈 준 사람이 말합니다. "너도 생각을 해라, 심부름꾼도 생각을 해 봐야지. 어찌 안 해 봤느냐. 그 돈에서 우선 양복 한 벌은 사 입고, 구두 하나 사 신고, 모자 사 쓰고 그러고 가지, 이 멍청아!"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고 등을 두드리면서 "너는 진짜 사람이구나!" 하더라는 거죠.

그런 거와 같이 사람이 마음이 정갈하면, 정갈하다는 건 '정청하다' 이런 말도 되죠. 그런데 바다에 말입니다. 구경물이나 모든 오물이 안 들어 간다면 바다라고 할 게 없죠. 어떤 오물이 들어간다고 시 간이 지나면 다 수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처님 법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다' 이러면 작은 우물과 같고 연못과 같지만, '한 바다' 이렇게 하면 구경물, 깃물, 고름물, 흙물이 다 들어가도 그 바닷물이 다 수습해서 맑은 물로 되거든요. 그것을 정청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거를! 나쁘고 울고, 더럽고 깨끗하고, 짙고 길고, 못생기고 잘생기고, 부자고 가난하고 이런 걸 몽땅 한데 합쳐서 우리가 동글릴 수 있어야만 그게 청정이란 얘깁니다.

이제 그만하고 우리 토론할까요?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7년 12월 7일 법체제 법회에 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잘되는게 부처님 법이 아닙니다

### 잘되고 못되고 이 양 갈래길을 다 자기 한손에 쥐어야만이 그걸 부처님 공법이라 합니다!

하지도 말고, 나한테 물으려고 애쓰지도 말고 '당신, 그 광대한 묘법의, 내면세계의 너만이 알려 줄 수 있다.' 하고 그렇게 자꾸 두들기란 말입니다. 담은 문을 열고 다니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선승(禪僧)이 될 수도 없거나 그 공부를 못 해요. 그건 논리에 의해서 문이 있고 없는 거지만 이 무(無)의 세계의 문 아닌 문은 논리가 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에만 있다고 해서 '산책도 하고 어디 구경도 나가고 그러지, 한 칸 되는 방구석에서 서만 있다.' 이러겠지만 난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내 곁데기는 거기 두고 나가요. 이 법당에 내가 안 오는 줄 알죠? 허허하... 그래도 가끔은 온답니다. 왜냐? 들어 안 된 까닭이요. 그렇다고 꼭 육체로 오는 것만 오면 안 되는 건 아니죠. 거기서 보고 있으면 벌써 내가 여기에 와서 예배를 올리고 있거든요. 허허하... 가지가지로 응도에 따라서 내가 쓸 수 있고 할 수 있고 그런 거는 다 해요.

그래서 부처님 법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으로써 보살을 놓아 가지고 보살을 제각기 자유스럽게, 지장은 지장대로 지장이고, 관세음은 관세음이고, 약사는 약사고 이렇게 이름을 다 붙여서 그냥 응신(應身)으로 화(化)하게 만들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백 사람이 깨웠다 하더라도 일불(一佛)이예요. 그렇게 좋은 거죠, 너 나 할 거 없이.

내가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질문할 시간이 없겠다. 그러니까요, 내가 뭐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예요. 어떤 분은 좋고 있을 테지만 말이에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예요. 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머리에 스쳐 간단 말입니다. 모든나 하더라도. 요다를 세상에 나올 땐 '아,

니가 안 돌아가셔서 걱정, 빨리 돌아가셔서 그리워서 걱정, 이거는 그냥 매사가 사는 게 전부 그래요. 거기서 조금 '나'라고 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한 철 구름같이 살다가 구름같이 떠가는 거, 이 도리를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계셔도 태자로 나왔을 때 '왜 사람은 병들고 늙고 죽느냐?' 하는 의심을 가지고... '정말 사는 거 같지가 않거든요, 자기도 늙어 죽으니까, 조금 양으로 있어 봤자 신통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병들고 죽을 걸 그까짓 거 몇 알갱이 산다고 내가 이거를 맡아' 하고 그냥 나간 거죠. 허허하...

그래 나가서 자기를 자기와 알고 보니까 '아하, 이렇게구나!' 하는 걸 알았더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필연적으로 해야 할 일, 꼭 알아야 할 일 그리고 꼭 답당해야 할 일들이죠. 여러분이 진짜 자기 선장을, 자기를 이끌어 가는 선장을 진짜로 믿는다면 하늘이 지금 무너져서 가구가 된다 하더라도 아주 꺾릴 웃고 있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걸. 이따가 죽는다 하더라도 지금 꺾릴 웃을 겁니다.

나는 어디서 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고 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뿐이예요. 돈이 됩니까? 내가 돈을 가지려고 애를 쓰면 돈이 오질 않아요. 주인공에다 맡기고 오직 주인공에 서부터 나에게 그냥 스스로 갖다 주게 만들어야지 억지로 끌어 잡아당긴다고 해서 그 돈이 나한테 늘러 있는 게 아니예요. 억지로 끌어 잡아당겨서 내가 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건 한 시간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냥 되나가요. 하루를 지냈

**전자식 2종문 3종경보** **특한**

##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던지면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대

-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 100%
-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특 043-647-2378, 011-467-1472**

## 제8기 불교의식 (범음, 범패) 학인모집

- ◆ 초급반 (3개월): 시율(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식, 쇠송, 상단예불, 불공시식 등
- ◆ 중급반 (3개월): 상주권공, 대량관육, 신중작법, 지장정, 관음시식, 다비식 등 (기초범음, 범패)
- ◆ 고급반 (3개월): 49재, 천도재, 수륙재, 예수재, 기타모든의식
- ◆ 특수반: 천수바라 작법(나비춤) 오잡바라 사다라니바라 실품이 연화무

■ 불교무용에 관심있으신분 환영함 (특수반수업은 매일 가능함)

■ 매주 강의요일 : 수·목 오후 3시 ~ 5시

본원은 초종파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초심자라도 어렵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사무실 : 부산시 금정구 장전2동 598-12 보리원  
전화 051)555-0969 / 핸드폰 011)849-0961  
불교모든행사와 의식을 궁극에있는 스님들움모시고 어렵게봉행하여 드림.

**전통범음범패전수원 원광사**

## 수행도우미

기분좋은 환희심나는 체험으로  
수행생활의 기쁨을 누리세요

**발로 해**  
(특수기능성 양말)

신는순간 따뜻해진 발 노랑겨나 갈라진 굳은살. 보들보들, 보송보송 피곤할 때 느끼는 발뒤꿈치, 발목아름 즉시 애소 (절할때, 성지순례, 운전)

**스트레칭 필**

질수명, 잠잘때 착용하면 어깨 결리고, 시리고, 땀냄, 오십건과 스트레스 순간애소

**청명고요(수행방석)**

배에 힘이 모아져 안정된 자세와 집중력, 또렷함 유지 수험생, 고시생, 컴퓨터, 운전할때 틀음 피로 완전 애소

[호락호락센터, 와신삼매요, 보석연꽃센터, 금강저조끼, 기도포, 팔관애인(손목,목뿔포대)]

서울법당 (02) 456-0035 부산법당(051) 583-7886 대구법당(053) 743-0063 광주법당(062) 375-3500

인터넷주문도매인 : **www.법왕정사.kr**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가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실법**

풍동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속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